

# 한우마당

제 21권 제10호(통권 167호)  
2020년 10월 26일 발행  
<비매품>

**발행인** 김홍길  
**인쇄처** 팜커뮤니케이션  
**발행처** 사단법인 전국한우협회  
**주 소** 서울시 서초 서초1동  
1621-19 제2축산회관 2층  
**전 화** (02) 525-1053  
(02) 597-2377  
**팩 스** (02) 525-1054  
**이메일** 025251053@daum.net  
**등록번호** 서초라 11499

vol. **167** 2020.10.  
Hanwoo Journal

## contents

### 현장스케치

- 41 코로나가 바꾼 풍경 '드라이브스루 판매'
- 42 한우능력평가대회 대통령상 역대 최고가 '6,259만원'

### 특집 | 가축질병 특별방역기간 돌입

- 44 방역에는 베테랑이 없다
- 48 알아도 다시 보자! 구제역 토크보기
- 52 올바른 구제역 백신 접종 요령

### 시선집중

- 54 한우동향분석
- 66 한우산업(축산업) 한국판 뉴딜을 위하여
- 74 축협과 한우농가 갈등으로 본 한우협업체의 미래

### 사양·컨설팅

- 80 제23회 전국한우능력평가대회 대통령상에 전남 영암 '김용복 씨'
- 85 어린송아지 사양관리 개선을 통한 생산성 향상
- 90 한우사육 100문100답 \_ 국립축산과학원

### 소식·정보

- 94 소식·정보
- 99 뉴스클리핑
- 102 한우를 알려드립니다 \_  
한우 구울 때 나오는 핏물을 먹어도 되나요?

## 코로나가 바꾼 풍경 드라이브스루 판매



지난 9월 24일부터 26일까지 대구 스타디움 태극광장에서 열렸던 ‘2020년 도농상생 추석맞이 한우고기 드라이브스루 소비촉진행사’에서 김홍길 회장이 차를 타고 주문하는 손님을 맞이하고 있다.

이번 행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드라이브 스루 방식으로만 판매됐다. 최근 낯설게만 느껴졌던 드라이브스루 방식의 소비판매행사가 급속도로 퍼져 우리네 일상에 파고들고 있다.

김홍길 회장은 “앞으로도 비대면 판매와 유통이 주력으로 자리잡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온라인 및 비대면 판매 등에 차질이 없도록 결제 시스템, 출입관리 등의 매뉴얼을 보완해 완성도를 높여갈 것”이라고 말했다.

## 한우능력평가대회 대통령상 역대 최고가 '6,259만원'

제 23회 한우능력평가대회에서 전남 영암군 김용복 씨의 농장에서 올해 최고의 고급육이 나왔다. 한국종축개량협회와 본회가 주관한 이번 한우능력평가대회에서는 지난해보다 열띤 경쟁이 펼쳐졌다. 지난해보다 참가 농가수와 우수축이 많았다는 후문이다.

특히, 국무총리상과 대통령상의 격차는 단 0.35점에 불과하는 등 한우능력평가대회에 출품되는 한우의 수준이 상향 평준화되고 있다는 평가다. 한우농가들의 개량 의식과 사육방법이 고도화되면서 한우 품질이 더욱 높아진고 있다는 의미다.

대통령상을 차지한 전남 영암의 김용복 씨는 “처음 한우사육을 시작할 때부터 개량에 관심이 많았다”며 “과감한 선발과 도태가 대통령상의 비결”이라고 소감을 전했다. <시선집중에서 계속>





특집

# 가축질병 특별방역기간 돌입

1. 방역에는 베테랑이 없다
2. 알아도 다시보자! 구제역 톺아보기
3. 올바른 구제역 백신접종 요령



특집  
01

가축질병 특별방역기간 돌입

# 방역에는 베테랑이 없다

방심은 금물! 철저한 차단방역으로 가축 지켜야  
내년 2월까지 가축질병 특별방역대책기간  
백신 접종·축사 소독 만전  
한우산업 관련 규제개혁 주문

이달 10월부터 내년 2월까지 운영하는 가축질병 특별방역대책기간이 운영된다. 사상초유의 팬데믹 속에서 사람 외에도 가축을 지켜내기 위해 철저한 차단방역이 요구된다. 조류인플루엔자(AI) 위기대응 단계는 10월 1일부터 ‘관심’에서 ‘주의’ 단계로 상향 조정됐다.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은 지난해 9월 첫 발생 이후 10월에 마지막 농장에서 발생한 뒤 현재까지 추가 발생이 없지만, 야생멧돼지에서 지속적으로 검출돼 위기경보 ‘심각’ 단계가 1년 이상 유지되고 있다. 아직 소와 관련한 이슈는 발생하고 있지 않지만, 전국 소·염소 구제역 일제 백신 접종을 기간 내 빠짐없이 실시해 항체를 형성시켜 요네병, 브루셀라, 우결핵 등의 질병 차단에도 신경 써야 한다.

## 중국 브루셀라병 비상

코로나19의 발원지로 알려진 중국에서는 전염병 이슈가 사람과 가축에게 끊이지 않는 모양새다. 중국 서북부 간쑤(甘肅)성에 위치한 브루셀라병 백신 생산공장의 직원 3천여 명이 브루셀라병에 집단 감염되는 일이 발생했다.

국내 언론의 보도와 외신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중국농업과학원 산하 란저우 수의연구소에서 브루셀라병 집단감염이 발생한 후, 9월 14일까지 란저우 주민 2만1천847명을 검사해 3천245명에 대해 브루셀라병 확진 판정을 내렸다.

당국의 조사에 따르면 이번 감염은 지난해 7~8월 동물용 브루셀라병 백신 생산 과정에서 사용 기한이 지난 소독약을 쓰면서 생산·발효시설에서 나온 폐기물이 제대로 살균되지 않았고, 브루셀라균이 포함된 폐기물이 에어로졸 형태로 외부로 퍼졌다.

당시 이 지역에서는 바람을 타고 연구원과 지역 주민 등이 흡입이나 점막 접촉 등의 방식으로 감염됐다.

브루셀라병은 동물에서 인간으로 감염되는 인수 공통 전염병으로 일반적으로는 소와 양 등 가축을 통해 사람에게 전염될 수 있다. 사람이 이 균에 감염되면 발열·두통 등의 증세가 나타나고 생식계통에 영향을 끼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축사내부



발판소독조



출입 통제 및 소독



내부 청소



급수조 청결



퇴비사 청소

## 구제역 백신 접종과 축사관리

구제역 백신은 8주령과 12주령에 접종하고, 다른 질병은 농장의 백신 접종 프로그램에 맞게 꼼꼼히 접종한다. 축사 내 소독 위생관리도 중요하다. 축사 안 세척을 통해 유기물을 최대한 제거하고 소독제를 살포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국립축산과학원 연구 결과, 유기물이 적을 때 소독제의 효과가 증가하지만, 유기물이 많을 때는 소독제의 효과가 감소했다.

가축, 사료, 물품 등을 운반하는 축산차량이 농장에 출입하지 않도록 통제하며, 감염 전파가 우려되는 야생동물이 들어오지 못하게 대비해야 한다. 부득이 출입할 경우 차량과 사람 모두 소독 후 출입해야 하며, 출입 인원과 명단, 차량번호 기록 등의 이력관리도 필요하다.

축사에 출입하는 모든 사람은 축사 안팎으로 통과하는 공간(전실)에서 축사 전용장화로 교체해 외부의 병원체를 차단하는 것이 중요하다. 농장의 자체 방역규칙을 모든 출입자에 예외없이 공통 적용해야 한다.

## 환절기 송아지 질병 주의

일교차가 큰 환절기를 맞아 송아지 관리에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초유를 충분히 먹지 못했거나 축사 환경이 열악한 경우, 장거리 이동으로 스트레스를 받은 송아지는 더욱 세

심하게 살펴야 한다.

송아지가 설사병에 걸리면 분변의 수분량이 많아지고 설사 양과 횟수가 늘어난다. 이로 인해 탈수와 전해질 상실, 체내 수분의 산성화, 영양소 부족, 장운동 항진, 체온 저하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설사병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로타바이러스, 코로나바이러스, 대장균 등의 예방백신을 새끼 낳기 전 어미 소에 접종하거나 분만 직후 태어난 송아지에게 먹여야 한다. 호흡기 질병에 걸린 송아지는 초기에 투명한 콧물을 흘리다가 점차 농이 섞인 점액성 콧물을 보인다. 또한, 기침과 호흡곤란 증세가 나타나고 눈이 충혈돼 눈물 양이 많아진다.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전염성 비기관염, 바이러스성 설사병, 파라인플루엔자, 합포체성 폐렴 등을 같이 예방할 수 있는 혼합 백신을 3개월령 이상 송아지에게 2~4주 간격으로 2회 접종한다.

송아지 축사는 정기적인 청소와 소독, 환기를 통해 쾌적하게 관리하고 사양 관리에도 신경 쓴다. 어미 소가 새끼 낳기 전 축사의 분변을 깨끗하게 치우고 소독한다. 분만 뒤 1~2시간 안에 송아지가 초유를 충분히 먹을 수 있도록 관리한다. 초유 섭취가 부족하면 면역력이 떨어져 질병 발생 위험이 높아진다.

주요 소모성질병 발생건수(KAHIS)

마릿수(발생건수)

축종	질병명 (가축전염병)	2017	2018	2019	~2020.9.3.
소	요네병(2종)	257(85)	192(74)	135(52)	94(46)
	브루셀라(2종)	686(92)	622(63)	609(64)	423(65)
	우결핵(2종)	3,497(443)	2,789(427)	3,919(430)	1,653(177)
돼지	PED(3종)	7,404(100)	34,716(221)	29,128(137)	2,953(36)
	PRRS(3종)	141(23)	313(29)	132(26)	38(13)



특집  
02

가축질병 특별방역기간 돌입

# 알아도 다시 보자! 구제역 툰아보기

## Q. 구제역이란?

소, 돼지, 양 등 우제류(발굽이 둘로 갈라진 동물)에서 발생하는 바이러스성 급성 가축 전염병이다. 해외에서 유입된 바이러스로 추정되며, 구제역 바이러스는 최대 14일 동안 분뇨 등에 잠복할 수 있으며

야외에서는 6개월까지 생존한다고 알려져 있다. 구제역은 인수공통전염병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에게 전파되지 않는다.



## Q. 구제역 증상은?

구제역에 걸리면 발병 후 24시간 이내에 침을 심하게 흘리고 입맛다시는 소리를 내기도 한다.

잇몸, 혀, 코 등에 물집이 생겨 식욕을 잃거나 수포가 온몸에 퍼져 다리를 절기도 한다. 물집은 발굽의 사이와 제관부, 젖꼭지 등에서도 관찰될 수 있다. 체온이 상승하고 걸음 걸이가 불편해 보이며 식욕이 저하되는 증상을 보인다. 6개월 이하 어린 송아지의 경우 폐사로 이어질 수 있고 임신우에서는 유산을 초래하기도 한다.

## Q. 구제역 전파는 어떻게?

구제역 바이러스는 가축의 콧물, 침, 분변을 직접적으로 접촉한 직접전파와 차량과 야생동물에 의해서 전파되는 간접전파의 경우가 있다. 특히 감염된 가축과 접촉한 차량과 사람의 의복, 사료, 물, 기구 등을 통해서도 전파될 수 있다. 공기전파의 경우 육지에서는 50km, 바다를 통해서는 250km이상까지 전파된 보고가 있다.



## Q. 구제역 치료 및 예방약은?

구제역 발생 시 질병확산을 억제하거나 예방을 위해 구제역 감수성 개체에 백신을 접종할 수 있다. 혈청간 방어가 안되기 때문에 필요한 경우 혈청형별로 백신을 접종해야 할 수도 있다.

일반적으로 구제역 백신은 동물세포에서 구제역바이러스를 대량으로 증식시킨 후 이를 화학적으로 불활화한 후 정제 및 농축과정을 거쳐 생산된 항원에 면역원성을 증강시켜주는 부형제를 섞어놓은 것이다. 백신의 안전성과 방어효능은 동물실험을 통해 평가하고 구제역 백신 협의체에서 선정한다. 우리나라는 1년에 2번 구제역 백신 상시 접종을 실시하며 상시 백신접종을 하지 않는 유형의 항원은 항원뱅크에 일정량 보관하고 있어 유사시 신속하게 백신으로 제조해 도입할 수 있도록 준비돼 있다.

### 엄격한 전문가 회의를 거쳐 백신을 선정



**구제역 세계표준연구소**  
- 지역별 바이러스 발생 예측  
- 적절한 백신유형 추천



**구제역 백신 전문가 협의회**  
- 국내 실정에 맞는 최적의 백신 선정

### 구제역 백신의 원리 및 효과



구제역 백신 접종



구제역 바이러스에  
대항할 수 있는 항체 형성



형성된 항체가 구제역  
바이러스로부터 소를 보호

### Q. 구제역 축산물이 유통되나요?

구제역에 걸린 가축이 축산물이력관리시스템으로 관리되어 감염축은 도축되지 않는다. 구제역 검사로 감염되지 않은 소만 도축하며 감염 가축이 발견되었을 시에는 역학조사로 감염축을 추적관리한다. 따라서 구제역에 걸린 축산물은 시중에 유통될 수 없다. 구제역 발생 보도가 나오더라도 국내에서 판매중인 한우나 한돈 등이 안전한 이유는 이같은 촘촘한 관리체계가 가동되고 있기 때문이다.

### Q. 소는 어떻게 접종하나요?

소의 경우 백신 1차 접종이후 4주후 2차 접종 하고 이후에는 4~7개월 간격으로 접종한다. 목근육에 직각으로 접종해야 하며, 가축의 저항 및 안전사고, 이상육 발생, 접종시간 단축, 주사기 재사용 등의 문제로 무침주사기를 활용한 접종과 이에 대한 지원방안도 요구되고 있다.

개체단위에서 허약한 소이거나 항체 형성전 소는 구제역에 감염될 수 있으므로 적절한 백신 취급과 접종, 세척 및 소독과 차단방역에 힘써야 한다.





# 올바른 구제역 백신 접종 요령

## 축산농가를 지키는 6의 법칙

숫자로 배우는 올바른 구제역 백신접종 요령



농림축산식품부

2010년

약 350만 마리 가축의 생명을 앗아간 병,  
구제역을 기억하시나요?



그 시기 이후, 구제역으로 인한 비극이  
되풀이되는 것을 막기 위해  
축산농가에서는 백신 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그런데 백신,  
올바르게 접종하지 않으면  
효과가 크게 떨어진다는  
사실  
...  
알고 계셨나요?

그래서 백신이 제 역할을 다하기 위해선  
우리는 올바른 구제역 백신 접종 방법을 알아야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숫자 1부터 6까지  
올바른 백신 접종 요령을 알아보시다!

농림축산식품부

이 외에도 백신 접종 실시자는 농장 출입 시  
반드시 차단 방역 수칙(방역복·장화·장갑 착용 및 소독 등)을 준수해야 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모든 지식을  
행동으로 실천하는 것입니다.



기억하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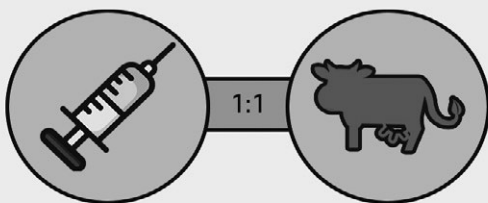
실천하는 올바른 구제역 백신 접종  
그것이 비극을 막는 첫걸음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

법칙:일

## 원칙은 1침 1두!

(돼지는 1침 5두 이내)



동일한 주사바늘로 여러 마리를 접종할 경우,  
주사바늘이 오염되고, 끝부분이 뭉뚱해져  
접종 부위에 염증을 발생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농림축산식품부

법칙:이

## ‘백신’도 2팔청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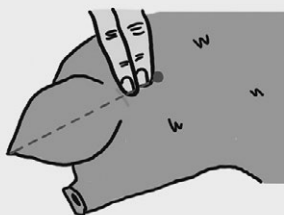


구제역 백신은 반드시 직사광선을 피하고  
냉장상태(2~8°C)로 보관·운송해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

법칙:삼

## 귀 뒤로 3cm!



귀 정중앙을 따라 귀 뒤로 손가락 2개(약 2~3cm) 정도  
끝나는 부분에 접종한다. 접종 전엔 병을 천천히  
위, 아래로 흔들어 고르게 섞어 준다.(20회 정도 섞기)

농림축산식품부

법칙:사

## 4용은 바로 바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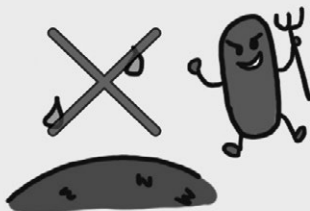


백신을 개봉한 후에는 되도록 빠른 시간 내에  
사용한다. 또한 남은 백신은 냉장보관하며,  
개봉 후 24시간 경과 백신은 폐기하여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

법칙:오

## 5염은 안돼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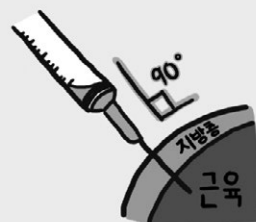


접종 대상 동물이 젖어있을 경우에는 접종 부위가  
세균 등에 의해 오염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접종 부위가 마른 후에 백신 접종을 실시한다.

농림축산식품부

법칙:육

## 목표는 근6이다!



근육에 접종하고, 주사바늘이 반드시 수직이  
되도록 하여 접종한다. 또한 접종 용량이 근육 내로  
완전히 주입될 수 있도록 천천히 주입한다.

농림축산식품부







# 한우동향분석

## 요약

### (한우사육) 9월 한우 사육 및 가임암소 전년동기 대비 증가

- 지속적인 농장수 감소로 농장 규모화 진행 중

### (등급판정) 9월 한우 등급판정두수 전월 및 전년동월 대비 대폭 증가

- 1등급 이상 출현율은 75.3%로 전월 및 전년동월 대비 증가

### (도매 및 산지가격) 9월 한우 도매 및 산지가격 전년 대비 상승

- 한우 도매가격 전년 및 전분기 대비 상승세 지속
- 한우 산지가격 큰암소·송아지 전년동월 대비 상승, 큰소·송아지 전월 및 전분기 대비 하락

### (배합사료 생산 및 정액판매) 전년동기 대비 1~9월 판매량 모두 증가

- 한우사육 두수 증가로 1~9월 배합사료 생산량 전년동기 대비 증가
- 가임암소 증가와 높은 번식의향으로 1~9월 정액판매량 전년동기 대비 증가

### (쇠고기 수입) 1~9월 쇠고기 수입량은 전년 대비 감소

- 냉동쇠고기 수입량은 감소한 반면 냉장쇠고기 수입량은 증가

### (수급전망) 한우 사육 증가세 지속 전망

- 가임암소 및 정액판매량 증가로 송아지 생산 증가 예상, 한우 사육두수 증가세 지속 전망
- 사육두수 증가로 도축두수 증가 예상되며, 도축량 증가로 도매가격 소폭 하락 전망



## 한우 사육동향

### 2020년 9월 한우 사육 및 가임암소 전년동기 대비 모두 증가

- 한우 사육두수는 323만 7천두로 전년동월(311만 6천두)보다 3.9%(12만 1천두) 증가, 전월대비 1.9%(6만 1천두) 증가
  - 전년 대비 사육두수 증가는 가임암소를 비롯한 1~2세와 2세 이상 사육두수가 증가했기 때문
- 가임암소는 154만 6천두로 전년동월 대비 4.9%(7만 2천두) 증가, 전분기 대비 4.5%(6만 6천두) 증가
- 연령별 사육두수는 1~2세와 2세 이상에서 전년동월, 전분기 대비 모두 증가
  - 반면 전년동월 및 전월대비 1세 미만은 각각 4.4%, 3.2% 감소
    - 이는 개월수 증가에 따라 1세 미만은 1~2세로, 1~2세 미만은 2세 이상으로 이동했기 때문
- 농장수는 88,893호로 전년동월 대비 1.4%(1,249호) 감소, 전월 대비 0.3%(262호) 감소해 농장 감소세 지속
- 농장당 사육두수는 36.4두로 전년동월 대비 5.2%(1.8두) 증가, 전월 대비 2.2%(0.8두) 증가해 사육두수 규모화 지속

<표1> 한우 사육현황

(단위 : 호, 천마리, %, 마리)

구분		농장수	사육 두수	가임 암소 두수	송아지 두수	연령별 두수			농장당 사육두수
						1세 미만	1~2세	2세 이상	
2015		101,670	2,769	1,330	706	777	784	1208	27.2
2016		97,498	2,810	1,346	723	792	788	1229	28.8
2017		94,107	2,871	1,372	784	834	804	1234	30.5
2018		92,238	2,962	1,427	899	861	825	1276	32.1
2019	3월	91,496	2,908	1,396	168	870	824	1,214	31.8
	6월	90,856	3,094	1,420	371	890	826	1,377	34.1
	9월(A)	90,142	3,116	1,474	246	898	838	1,379	34.6
	12월	89,731	3,078	1,484	160	883	852	1,321	34.1
2020	3월	89,411	3,038	1,456	186	922	862	1,254	34.0
	6월(B)	89,155	3,175	1,480	330	887	878	1,410	35.6
	9월(C)	88,893	3,237	1,546	249	858	894	1,485	36.4
증감율	전년동월 (C/A)	△1.4	3.9	4.9	1.4	△4.4	6.6	7.7	5.2
	전분기 (C/B)	△0.3	1.9	4.5	△24.4	△3.2	1.7	5.3	2.2

주 : 1. 매월1일 기준

2. 2020년 2분기까지는 '가축동향조사' 자료이며, 2020년 3분기 자료는 '소이력제현황' 자료임

3. 송아지 생산두수의 경우 2020년 2분기까지 자료는 가축동향-한우과거 3개월간 변동상황'자료이며, 2020년 3분기의 경우 이력제시스템-'지역별 출생신고현황'자료 누계(7~9월)임

자료 : 통계청, 축산물품질평가원



## 한우 등급판정 동향

### 9월 한우 등급판정두수 전월 및 전년동월 대비 모두 크게 증가

- 9월 한우 등급판정두수는 95,784두로 전월(60,487두) 대비 58.4%(35,297두) 증가, 전년동월(58,294두) 대비 64.3%(37,490두) 증가
  - 성별비율은 암소 45.1%, 수소 1.7%, 거세우 53.2%
  - \* 전월대비 : 암소 0.3%p↓, 수소 0.6%p↑, 거세우 0.3%p↓

<표 2> 한우 성별 등급판정두수

(단위 : 두, %)

구분	계	암	수	거세	수소거세율
전년누계	564,120	256,985	8,629	298,506	97.29
('19.1.~9월)	(100.0)	(45.6)	(1.5)	(52.9)	
금년누계	586,040	272,632	7,965	305,443	97.5
('20.1.~9월)	(100.0)	(46.5)	(1.4)	(52.1)	
전년동월	58,294	25,767	966	31,561	97.0
('19.9월)	(100.0)	(44.2)	(1.7)	(54.1)	
전월(8월)	60,487	27,457	642	32,388	98.1
	(100.0)	(45.4)	(1.1)	(53.5)	
당월(9월)	95,784	43,181	1,635	50,968	96.9
	(100.0)	(45.1)	(1.7)	(53.2)	

자료 : 축산물품질평가원 '등급판정통계'

## 9월 한우 등급판정 결과 1++등급 23.8%, 1+등급 26.3%, 1등급 25.2%

- 9월 1등급 이상 출현율은 75.3%, 1++등급 23.8%, 1+등급 26.3%, 1등급 25.2%
  - 전월 대비 1등급 이상 전체 출현율은 전월(73.9%) 대비 1.4%p↑, 1++ 등급은 1.3%p↑, 1+등급은 0.6%p↑, 1등급은 0.5%p↓
  - 전년동월 대비 1등급 전체 출현율은 0.6%p↑, 1++등급은 8.1%p↑, 1+등급은 2.6%p↓, 1등급은 4.9%p↓
  - 전년누계 대비 1++등급은 7.8%p↑, 1+등급은 3.6%p↓, 1등급은 4.1%p↓

<표 3> 한우 등급별 출현율 추이

(단위 : 두, %)

구분		판정 두수	육질등급						육량등급			등외
			1++	1+	1	소계	2	3	A	B	C	
2016		737,476	9.6	30.4	29.4	69.3	22.8	7.6	22.9	47.2	29.6	0.2
2017		742,536	10.1	33.3	28.7	72.1	20.3	7.4	21.2	47.1	31.4	0.3
2018		736,354	12.2	30.4	30.4	72.9	19.4	7.3	20.5	47.6	31.7	0.3
2019		765,297	15.7	28.3	29.9	74.0	18.6	7.1	20.7	48.2	30.8	0.3
2019	9월(A)	58,294	15.7	28.9	30.1	74.7	17.7	7.3	20.7	49.3	29.6	0.3
	1~9월(B)	564,120	14.3	28.7	30.5	73.5	19.0	7.2	20.8	47.9	31.0	0.3
2020	8월(C)	60,487	22.5	25.7	25.7	73.9	18.2	7.6	23.1	52.8	23.8	0.3
	9월(D)	95,784	23.8	26.3	25.2	75.3	17.3	7.2	25.2	51.6	23.1	0.2
	1~9월(E)	586,040	22.1	25.1	26.4	73.6	18.6	7.5	25.6	50.3	23.9	0.3
전월대비(D-C)		35,297	1.3	0.6	△0.5	1.4	△0.9	△0.4	2.1	△1.2	△0.7	△0.1
전년동월대비(D-A)		37,490	8.1	△2.6	△4.9	0.6	△0.4	△0.1	4.5	2.3	△6.5	△0.1
전년누계대비(E-B)		21,920	7.8	△3.6	△4.1	0.1	△0.4	0.3	4.8	2.4	△7.1	0.0

자료 : 축산물품질평가원 '등급판정통계'

## 한우 도매 및 산지가격 동향

### 9월 한우 도매가격 전년 및 전분기 대비 상승, 전월 대비 하락

- 9월 1등급 기준 도매가격은 코로나19에 의한 가정내 소비증가로 전년동월 대비 9.2%(1,727원/kg), 전분기 대비 3.1%(613원/kg) 상승
  - 반면, 추석성수기 대비 출하증가로 전월 대비 1.5%(308원/kg) 하락
  - 한우도체 kg당 평균 도매가격은 전년동월 대비 8.6%(1,606원/kg), 전분기 대비 1.9%(384원/kg) 상승했으나, 전월 대비 2%(411원/kg) 하락

<표 4> 한우도체 육질등급별 도매(경락) 가격 추이(전국)

(원/kg, %)

구분		1++	1+	1	2	3	등외	평균
2017		20,325	18,189	16,951	13,969	11,048	5,715	16,719
2018		20,958	19,416	17,967	14,965	12,025	6,194	17,772
2019	3월	21,314	19,650	17,338	14,354	11,856	6,269	17,513
	6월	21,955	20,230	17,742	14,646	11,060	4,857	17,936
	9월(A)	21,779	20,370	18,834	15,322	10,915	5,400	18,610
	12월	20,901	19,685	18,444	15,790	13,024	5,107	18,506
	평균	21,290	19,788	17,922	14,778	11,649	5,281	17,965
2020	3월	22,036	20,629	19,022	15,210	11,829	4,757	18,662
	6월(B)	24,101	21,984	19,948	16,061	12,440	5,571	19,832
	8월(C)	24,235	22,300	20,869	16,249	12,372	5,692	20,627
	9월(D)	23,307	21,430	20,561	16,245	12,672	5,361	20,216
증감율	전년동월(D/A)	7.0	5.2	9.2	6.0	16.1	△0.7	8.6
	전월(C/D)	△3.8	△3.9	△1.5	0.0	2.4	△5.8	△2.0
	전분기(B/D)	△3.3	△2.5	3.1	1.1	1.9	△3.8	1.9

자료 : 축산물품질평가원 '등급판정통계'



## 9월 한우 산지가격 큰암소·송아지 전년동월 대비 상승, 큰소·송아지 전월 및 전분기 대비 하락

- 9월 큰소(600kg) 산지가격은 암소의 경우 6,101천원으로 전년동월 대비 9.2% (512천원) 상승, 전월 대비 2.1%(131천원), 전분기 대비 2.5%(154천원) 하락
  - 반면, 수소의 경우 5,420천원으로 전년동월 대비 2.4%(136천원), 전월 대비 0.1%(3천원), 전분기 대비 1.5%(84천원) 하락
- 9월 송아지(6~7개월령) 산지가격은 암송아지의 경우 3,481천원으로 전년동월 대비 9.8%(311천원), 전월 대비 0.7%(26천원), 전분기 대비 3.6%(129천원) 하락
  - 수송아지의 경우 4,510천원으로 전년동월 대비 11.9%(479천원), 전분기 대비 0.1%(5천원) 상승, 전월 대비 1.5%(71천원) 하락

<표 5> 한우 산지가격 추이

(단위 : 천원, %)

구분		큰소(600kg)		송아지(4~5월령)		송아지(6~7월령)	
		암	수	암	수	암	수
2016		5,816	5,650	2,465	3,485	2,900	3,550
2017		5,406	4,733	2,612	3,444	2,919	3,572
2018		5,599	4,911	2,725	3,272	3,118	3,841
2019	3월	5,619	5,495	3,290	3,307	3,149	3,684
	6월	5,558	5,685	2,771	3,562	3,362	4,219
	9월(A)	5,589	5,556	2,941	3,570	3,170	4,031
	12월	5,890	5,727	2,733	3,412	3,224	3,901
	평균	5,646	5,476	2,790	3,394	3,212	3,930
2020	3월	5,943	4,983	-	3,132	3,299	3,960
	6월(B)	6,255	5,504	3,189	4,393	3,610	4,505
	8월(C)	6,232	5,423	2,848	3,667	3,507	4,581
	9월(D)	6,101	5,420	2,571	3,733	3,481	4,510
증감율	전년동월(D/A)	9.2	△2.4	△12.6	4.6	9.8	11.9
	전월(D/C)	△2.1	△0.1	△9.7	1.8	△0.7	△1.5
	전분기(D/B)	△2.5	△1.5	△19.4	△15.0	△3.6	0.1

자료 : 농협축산정보센터 '산지가격동향'

## 배합사료 생산 및 한우정액 판매 동향

### 9월 배합사료 생산 및 한우 정액판매량 모두 증가

- 2020년 1~9월 배합사료 생산량은 3,716천톤으로 전년동기 대비 5.4%(189천톤) 증가했으며, 한우 사육두수가 증가가 원인으로 분석
- 1~9월 한우 정액판매량은 1,772천str로 전년 동기간 대비 12.6%(199천str) 증가
  - 이는 가임암소가 증가하고 높은 농가의 번식의향 때문으로 분석

<표 6> 배합사료 및 정액판매 추이

(단위 : 천톤, 천str)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합계
배합 사료	2017	388	363	398	355	389	373	349	389	416	358	395	394	4,566
	2018	407	358	374	368	389	364	348	401	366	428	407	404	4,616
	2019	439	341	383	403	403	365	404	397	392	430	406	428	4,791
	2020	426	384	412	414	404	402	427	390	457				3,716
정액	2017	141	47	176	158	160	211	229	170	214	180	148	122	1,956
	2018	134	119	166	55	237	233	223	195	189	179	151	174	2,054
	2019	138	48	207	196	195	196	231	183	183	185	192	141	2,095
	2020	157	168	155	213	207	231	207	211	227				1,775

주 : 2019년 2월 구제역 발생으로 정액판매가 중단(2.1~2.21)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농협경제지주 한우개량사업소

## 쇠고기 수입현황

### 2020년 1~9월 쇠고기 수입량은 전년 동기간 대비 2.5%(8,190톤) 감소

- 1~9월 쇠고기 수입량은 31만 5천톤으로 전년 동기간 32만 3천톤에 비해 2.5% 감소
  - 전년 동기간 대비 냉장쇠고기는 12.5%(8,039톤) 증가했으나 냉동쇠고기 수입물량이 큰 폭(16,229톤, △6.3%)으로 감소해 전체적으로 수입물량 감소
- 1~9월 부위별 쇠고기 수입물량은 전년 동기간 대비 등심과 양지 부위가 각각 19.8%(8,032톤), 12.3%(5,505톤) 감소한 반면 갈비와 앞다리 등은 각각 2.2%(2,706톤), 5.0%(1,997톤) 증가
  - 이는 코로나19로 인해 사회적거리두기 2.5단계 적용이 계속되면서 수입쇠고기의 주요 소비처인 외식과 단체급식에서 수요가 감소했기 때문으로 분석
- 1~9월 국가별 쇠고기 수입량은 전년 동기간 대비 호주와 미국에서 각각 6.2%(7,634톤), 3.3%(5,848톤) 감소한 반면, 멕시코와 뉴질랜드 등에서 각각 44.9%(1,944톤), 30.2%(3,232톤) 크게 증가

<표 7> 쇠고기 수입 추이

(단위 : 톤, %)

구분	물량			부위별					국별		
	합계	냉동	냉장	갈비	양지	앞다리	등심	기타	미국	호주	기타
2010	245,086	203,006	42,080	99,264	23,446	25,464	36,353	60,559	90,569	121,790	32,727
2015	297,265	245,952	51,313	115,460	38,582	31,404	42,826	68,993	112,431	164,063	20,771
2016	361,531	301,219	60,312	133,197	35,049	45,295	50,001	97,989	153,181	177,530	30,820



구분		물량			부위별					국별		
		합계	냉동	냉장	갈비	양지	앞다리	등심	기타	미국	호주	기타
2017		344,271	265,665	78,606	142,659	37,517	42,648	39,031	82,416	168,502	149,935	25,834
2018		415,685	326,531	89,154	151,933	53,737	54,270	55,595	100,150	219,769	167,454	28,462
2019		426,626	339,240	87,386	164,792	57,444	53,881	49,849	100,660	237,624	163,158	25,844
2019	1~8월	290,674	232,751	57,923	110,028	40,109	35,141	37,154	68,242	160,946	110,776	18,951
	9월	32,017	25,381	6,636	11,646	4,522	4,586	3,445	7,818	18,529	12,125	1,363
	누계(A)	322,691	258,132	64,559	121,674	44,630	39,727	40,599	76,061	179,475	122,902	20,314
2020	1~8월	275,476	212,180	63,295	109,440	33,900	36,628	27,653	67,855	149,282	103,059	23,134
	9월	39,026	29,723	9,302	14,940	5,226	5,096	4,915	8,849	24,344	12,209	2,472
	누계(B)	314,501	241,903	72,598	124,380	39,125	41,724	32,567	76,705	173,627	115,268	25,606
증감율	전년동기 (B/A)	△2.5	△6.3	12.5	2.2	△12.3	5.0	△19.8	0.8	△3.3	△6.2	26.1

주 : 누계 A와 B는 당해년 9월까지의 수입물량 합계를 의미  
 자료 : 식품의약품안전처(수입축산물검사실적)

## 06

### 수급 전망<sup>1</sup>

#### 당분간 한우 사육 두수 증가세 지속 전망

- 가임암소와 정액 판매량 증가로 송아지 생산 증가가 예상되며, 이로 인해 한우 사육 두수 증가세는 당분간 지속될 전망

1 KREI 축산관측 전망치

- 한우 사육두수 : 2020년 12월 두수는 전년 대비 4% 증가한 320만 3천두, 2021년 3월 3,141천두(3.3%↑), 6월 3,309천두(4.0%↑), 9월 3,323천두 (1.2%↑), 12월 3,272천두(2.1%↑) 전망
- 가임암소 : 2020년 12월 두수는 전년 대비 3.9% 증가한 154만 2천두, 2021년 3월 1,505천두(3.5%↑), 6월 1,531천두(3.4%↑), 9월 1,576천두 (1.7%↑), 12월 1,578천두 (2.3%↑) 전망
- 1세 미만 : 2020년 12월 두수는 전년 대비 3.9% 증가한 94만 2천두, 2021년 3월 933천두(1.2%↑), 6월 941천두(6.2%↑), 9월 949천두 (0.1%↑), 12월 951천두(1.0%↑) 전망

### 한우 도축 증가가 예상되며, 도매가격은 소폭 하락 전망

- 당분간 한우 도축은 사육두수 증가로 전년 대비 증가 전망
  - 2020년 도축 두수는 78만 3천두로 예상되며, 9~11월 21만 6천두, 12월~ 2021.2월 22만 3천두, 3~5월 19만 1천두, 6~8월 18만 3천두 도축 전망
- 도축량 증가에도 불구하고 전년동기 대비 도매가격은 소폭 상승하나 내년엔 하락 전망
  - 2020년 9~11월 도매가격은 전년 대비 3~7% 상승한 19,000원~19,500원으로 예상되며, 금년 12월~2021년 2월 18,000~18,500원, 3~5월 17,000원~17,500원, 6~8월 18,000~18,500원 전망



## 1. 들어가며

정부는 지난 7월 14일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을 발표하였다.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고 코로나 이후 세계 경제를 선도하기 위한 국가발전전략’을 표방하면서, ’25년까지 총 160조원(국비 114.1조원)을 투입하여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 ‘안전망 강화’를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 한우산업(축산업) 한국판 뉴딜을 위하여

한우 농가가 주도하는  
지속가능한  
한우산업 발전전략 모색

한민수 \_ 전국한우협회 한우정책연구소 책임연구원

농업·농촌과 축산업과 관련해서는, 스마트팜, 무인자동화 농업 기반, 축산물 온라인 경매 시스템, 디지털 농촌용수 관리 등 총 10개 과제가 반영됐다(기획재정부 검토가 끝난 사업만 포함).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향후 지역주도 뉴딜의 다양한 프로젝트와 연결될 수 있는 과제를 발굴하여, 예산 추가 확보 및 제도개선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내 농업·농촌 과제>

구분	농식품부 소관	타부처 소관
디지털	스마트팜 R&D, 첨단 무인자동화 농업시험 단지, 농업용수 관리 자동화 및 변위·누수 계측, 플랫폼(축산업 정보, 공공급식 통합, 축산물 경매)	전국 초중고 전체 교실에 고성능 WIFI 100% 구축, 교원 노후 PC 노트북 20만대 교체, 교육용 태블릿PC 24만대 지원
그린	저수지 수질자동측정망 설치, 농업기반시설 활용 태양광 보급, 노후 경유 농기계 조기 폐차	그린 스마트 스쿨 확산, 학교 주변 통학로 등 전선·통신선 공동지중화 추진
안전망 강화	-	농어촌 마을(1,200개) 초고속인터넷망 구축, 전국민 대상 디지털 역량센터 운영 (6,000개소)

출처: '포스트 코로나 시대 농업·농촌 뉴딜 추진 방향', "한국판 뉴딜, 농어민과 지역이 답이다" 토론회 자료집 내 농식품부 이재욱 차관 토론자료, p.109

이번 농업·농촌 및 축산업 분야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은 유럽연합(EU)이나 미국의 그린 뉴딜(그린딜)과 비교해 많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미국·유럽연합(EU) 그린 뉴딜(그린딜) 전략의 핵심에는 농업·농촌과 축산업이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그렇지 못한 게 가장 큰 차이점이다. 나아가 사람에게 필요한 에너지(식량)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자원을 공급하고 순환시키는 농민(농가)의 공익적 가치와 본질적 기능이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에 제대로 반영되지 못해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 미국 의회 그린 뉴딜 결의안

“농민, 농장주와 협력하여 지속가능하고 오염과 온실가스 배출이 없으며 건강한 먹거리를 생산할 수 있는 식량 시스템 구축, 독립적인 가족농 확대”를 반영

#### 미국 의회 그린 뉴딜 결의안

유럽연합(EU) 그린딜: “농장에서 식탁까지” 전략을 통해 “공정하고 건강하며, 환경친화적 푸드시스템”을 지향(30년까지 합성농약 90%, 화학비료 30%, 항생제 50% 사용량 감소, 친환경농산물 재배 면적을 25%로 확대), 유럽연합(EU) 그린딜은 농업을 핵심 주춧돌로써 인식·접근하고 있음

특히 식량(식용·사료용)과 농자재 해외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 여건상, 농업·농촌의 자원을 적극 활용하고 원활히 순환시켜 농업 분야 투입 에너지(에너지 비용)를 절감시키는 것이 시급한 과제를 생각할 때, 농업·농촌 및 축산업 분야 ‘한국판 뉴딜’은 앞으로 보다 근본적인 변화와 혁신이 절실히 요구된다.

## 2. 농업·농촌 및 축산업 분야 ‘한국판 뉴딜’ 혁신 3대 원칙

### (1) 지역(국내)자원 기반 경축순환농업을 지향

1970년대 이후 농기계, 화학비료, 유박비료, 합성농약 등에 지나치게 의존한 “석유의존형 농업”과 함께 “경종농업과 축산업 사이의 단절”이 심해짐에 따라, 우리 농업·농촌과 농민(농가)는 환경은 물론 경제적으로도 지속가능성이 많이 취약해졌다.

이를 해결하려면 지역(국내)자원에 기반을 둔 경축순환농업을 활성화하여, 가축분뇨 퇴·액비 등 국내 양분을 최우선적으로 최대한 사용하고 외부 투입재와 에너지에 대한 의존도를 낮춰나가야 한다.

### (2) 농업·농촌 핵심 리더 양성을 통해 농민주도 혁신 역량 강화

농업·농촌과 축산업에서 정부가 지향하는 “사람중심 포용국가 기반” 발전·혁신 전략을 실현하려면, 이를 책임지고 선도할 수 있는 젊은 핵심 농축산업 경영주들을 육성·정착시키는 게 급선무다. 나아가 이들 젊은 핵심 리더들이 농산업·농식품 전·후방분야는 물론 지역정치를 책임질 수 있도록 성장시켜, 농민주도형 내발전 지역 발전·혁신을 선도할 수 있도록 육성·지원하는 것이 한국형 뉴딜 농업·농촌 분야 핵심 전략이 되어야 한다.

### (3) 지역산업 혁신, 좋은 일자리 창출로 농촌사회·경제 활성화

구슬도 꿰어야 서말이다. 이렇게 마련된 지역 자원과 젊은 인재에 기반을 두고 민·관·산·학 등 관련 주체들이 광범위하게 참여하는 네트워크(예: 민관 협치 농정체제, 한우산업 혁신 클러스터)를 발전시키는 것이 관건이다. 특히 농업·농촌정책, 농축산업과 전·후방 관련산업에 있어 지역 내 주체들이 자신에게 필요한 사업들을 스스로 기획·집행·평가하여 재투자하는 선순환 구조를 성장시킬 수 있도록 농정추진체계를 변화시켜 나가야 한다.

## 3. 한우산업 분야 ‘한국판 뉴딜’ 전략은 어떻게 마련되어야 하나?

수많은 위기를 겪어오면서도 협회를 중심으로 9만여 농가들은 하나된 힘으로 한우산업을 농촌사회와 경제를 지탱하는 민족산업으로 성장시켰다. 그 결과 한우산업은 앞으로 농업·농촌은 물론 축산업 분야 ‘한국판 뉴딜’에 가장 적합한 산업으로 각광받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 사육두수: 3,212,641두, 농가수: 89,042농가('20. 6.)
- 생산액: 4조 8,972억원, 전후방산업 생산액: 10조원, 관련산업 종사원: 17만명
- 우리 고유 유전자원을 보존·개량하여 일소(역용우)에서 고깃소(비육우)로 성공적으로 전환시킨 세계 유일한 사례. 100대 민족문화상징으로 지정
- 친환경 경축순환모델 구축에 적합(한우 퇴비↔자급 사료·조사료 활용)
- 최신 ICT 기술 접목·활용, 농민(한우협회) 주도형 발전 잠재력이 높은 특성 보유

하지만 한우산업이 처한 도전도 만만치 않다. 온실가스, 미세먼지, 축산 냄새, 수질·토양 오염 등 축산환경 문제와 함께, 축산업에 대한 혐오 정서 확산, 2020년대 중후반 농업 강국과의 FTA로 인한 축산물 관세 철폐 등 여러 여건들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최근

한우 사육두수, 특히 가임암소와 송아지 두수 증가세가 만만치 않아 전문가는 물론 한우 농가들도 향후 수급·가격 불안을 걱정하고 있다(아래 표 참고).

이 때문에 농가가 주도하는 지속가능한 한우산업으로 육성시키기 위해 정부와 민간 공동으로 선제적인 수급안정 대책을 조속히 시행해야 하며, 송아지생산안정제 발동 요건 개선(가임암소 기준 철폐, 안정기준가격 현실화 포함), 비육우경영안정제 도입과 같은 보다 근본적인 대책 도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한우 연령별 사육마릿수와 사육 농장수>**

(단위: 천두, 천가구, %, 두)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증감률
		9월	12월	3월	6월	9월	12월	3월	6월	전년대비
한우 사육 마릿수	1세 미만	848	861	870	890	898	906	922	887	-0.4
	1~2세	827	825	824	826	838	852	862	878	6.3
	2세 이상	1,344	1,276	1,214	1,377	1,379	1,321	1,254	1,410	2.4
	총계	3,020	2,962	2,908	3,094	3,116	3,078	3,038	3,175	2.6
가임암소 마릿수		1,432	1,427	1,396	1,420	1,474	1,484	1,445	1,480	4.2
한우 사육 농장수		93	92	91	91	90	90	89	89	-1.9

\* 매월 1일 기준이며, 2020년 6월은 통계청 가축동향에 발표된 잠정치임. 1세 미만 마릿수는 추후 통계청 확정 발표시 증가할 수 있음.

\* 출처: 통계청, 축산물품질평가원

그렇다면 한우산업 분야 ‘한국판 뉴딜 추진계획(전략)’은 어떻게 마련되어야 할 것인가?

**첫째, FTA 축산 분야 관세 철폐에 대비하여 농가 경영안정화 정책을 보완하고 신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FTA 피해보전직불제는 어느 품목·축종 혹은 국가와의 FTA로 인한 가격·수급 불안정 원인을 특정하기 어려운데다 수입기여도 문제로 인해 실질적인 피해 보전에 근본적인 한계가 있어 한우 농가에 큰 도움이 되지 못했다. 그러므로 송아지생산안정제 개선(가임



암소 수 기준 폐지, 안정기준가격 현실화 등), 비육우경영안정제 도입(민간 자율, 선제적 수급안정 정책 도입과 병행) 등으로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

**둘째, 축산 분야 공익적 가치 증진을 위한 선제적 투자(축산 분야 공익형직불제 도입 포함)가 이뤄져야 한다.**

올해부터 공익형직불제가 본격 도입·적용되어, 일정한 농가 준수 의무를 지키는 조건으로 기본형직불 및 선택형직불을 지급받게 되었다. 하지만 한우산업(축산업) 분야 공익형직불제는 극히 취약한 실정이다. 올해 농업·농촌공익기능증진직불기금 내 축산 분야 지출 총액(친환경안전축산직불, 선택형직불)은 15억 8,500만원이며, 이는 전체 농업·농촌공익기능증진직불기금(2조 6,314억원) 대비 0.006%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한우산업과 축산업의 공익적 가치를 밝히고 공익형직불제 도입 방안 마련을 위한 기초 연구가 시급한 실정이지만, 수산·산림 분야와 비교했을 때 아직 지지부진한 상태다. 다행히도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가 한우 분야 공익형직불제 도입 방안 연구용역을 올 가을부터 본격 추진할 예정이며, 농특위 공익형직불제 소분과에도 축단협이 참여하여 적극 의견을 제출할 방침이어서 향후 결과가 주목된다.

많이 늦었지만 축산 분야 공익형직불제(기본형직불, 선택형직불)가 제대로 도입·실시될 수 있게끔 깊이 있는 연구를 통해 준비가 철저히 이뤄져야 한다. 이를 통해 한우산업과 축산업의 공익적 가치를 높여, 국민들의 사랑과 지지를 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할 것이다.

**셋째, 한우산업 생산 및 전·후방산업까지 아우르는 협회(한우농가) 주도의 종합 ICT 플랫폼 구축·운영을 추진해야 한다.**

우리 협회도 중장기 발전 전략으로 한우산업 생산 및 전·후방산업을 아우르는 플랫폼

구축·운영을 구상·추진 중이며, 코로나19 사태에 직면한 현재 초기 단계 사업을 진행 중이다. 울산광역시지회(정인철 지회장)가 울주군청과 공동 추진한 ICT 축사관리 통합시스템(월간 한우마당 '20년 7월호 기사 참고)과 같은 모범사례도 나오고 있다.

일선 한우 농가들도 다양한 농장 경영 자료를 제대로 관리하고 분석해야 한다는 점을 잘 알고 있으므로, 농가 실정에 맞는 기술을 적용하여 사양(사육) 관리 및 가축 개량이 체계적으로 이뤄질 수 있게끔 해야 한다. 나아가 ▲한우(송아지·암소 등 생축, 지육·정육, 부산물 등) 수급·가격 동향 ▲사료·조사료 수급·가격 동향(국내, 해외) 등 각종 자료를 농가에 제공해야 한다.

**넷째, 한우 분뇨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게끔, 정부-민간의 공동 기초 연구가 선행되어야 하며, 이를 토대로 단기·중장기 전략을 수립하여 추진해야 한다.**

한우 분뇨(배출원)은 물론 깔짚 우사에서 만들어진 퇴비에 대한 성분 분석 및 환경 부하(수질오염, 미세·초미세먼지, 축산 냄새, 온실가스 발생량 등)와 관련한 기초 연구가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

이에 기반하여 ▲화학비료·유박비료 등 수입 양분 최우선 감축 ▲한우 퇴비를 포함한 가축분뇨 퇴·액비 최우선 사용 ▲축종별 분뇨 배출원단위가 아닌 실제 토양에 투입·활용되는 양분(N, P, K)량을 기준으로 하는 ‘토양양분관리제’를 도입·적용시키도록 해야 한다. 이는 작년 12월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가 의결한 ‘지역자원기반 경축순환농업 활성화 방안’의 핵심이며, 이 방안이 점진적으로 실현된다면 지속가능한 한우산업과 축산업으로 가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국내산 사료·조사료 자급률·이용률을 높이려는 노력도 병행되어야 한다. 쌀, 밀, 콩과 같은 식량작물에 비해 사료·조사료는 그 동안 제대로 주목받고 다뤄지지 못했다. 지금부터라도 30% 미만에 불과한 식량자급률(곡물자급률)을 점진적으로 개선함은 물론, 토양 양분의 합리적인 이용과 순환을 도모하여 축산환경 개선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000년대 후반부터 지역축협은 모든 품목을 아우르는 종합 축산업협동조합을 지향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한우를 사육하는 농가들이 주축을 이루고 있다.

축협들이 하는 사업을 보면 더욱 확인해지는데 대부분의 축협이 한우 브랜드사업을 하고 있거나 한우 관련 사업인 한우 경매시장 운영, 한우전문판매점 운영, 한우 전문식당, 한우 사료 판매와 같이 경제사업의 핵심이 한우이기 때문이다.



# 축협과 한우농가 갈등으로 본 한우협업체의 미래

전업농의 탈 축협 현상의 전조인가

김재민 \_ 농장과 식탁

## 전업농, 지역 축협과 멀어지다

축협들이 한우 중심의 사업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축협과 관내 한우농가와 갈등이 첨예한 곳이 한둘이 아니다.

최근에는 국내 최고 한우 브랜드로 손꼽히는 횡성에서 횡성축협과 관내 일부 한우농가가 첨예한 갈등을 빚다가 축협 측에서 일부 조합원을 제명하는 일이 벌어졌고, 소송으



로 이어져 현재 2심 판결까지 진행된 상황이다. 1심은 축협 승. 2심은 제명된 농가의 승리였다.

깊은 속사정이야 다 이야기할 수 없지만, 이는 축산업의 발전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겪을 수밖에 없는 성장통으로 보인다. 국내 축산분야 협동조합은 지역을 중심으로 조직되어 가축을 키우면 누구나 가입이 가능한 지역축협이 먼저 결성됐고, 축산농가들이 점차 전업화되자 전문품목을 중심으로 조직된 품목 축협이 이어 만들어졌다.

도드람양돈농협, 서울우유협동조합과 같은 조합이 품목 축협이고, 앞서 설명한 횡성축협, 경기권의 수원축협, 충남권의 천안축협과 같이 지역 이름을 쓰는 조합들이 지역축협이다.

농협중앙회에 가입된 품목 축협에는 낙농 및 우유축협 등이 12개소, 양계축협이 2개소, 양돈축협 7개소, 기타 1개소가 운영 중이다.

축협과 축산농가와의 관계는 축산농가는 주식회사의 주주와 같은 조합원으로 인적조직인 협동조합의 구성원이 되며, 축협을 통해 가축사육에 필요한 원자재를 공동구매하고, 사육한 가축을 공동판매하며, 상호금융사업을 통해 영농자금과 같이 축산업을 하며 필요한 자금 또한 쉽게 융통할 수 있다.

특히 공동 구매로 구매가격을 낮추고, 판매 시 독점력을 높여 좀 더 비싼 값을 받아 양축농가들의 경제적 이익을 극대화하는데 모든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러한 공동구매, 공동판매와 같은 서비스는 과거 축산농가들이 전업화, 규모화되기 이전에는 매우 유리했지만, 전업화가 진행되면서 지역축협이 제공하는 상품과 서비스가 규모가 큰 농가에는 맞지 않게 되었다는 데 있다. 전업 양돈, 양계농가, 낙농가는 일부는 품목 축협으로 일부는 민간업체의 서비스를 이용하며 지역축협과 자연스럽게 멀어지게 된다. 지역 축협에서 이들 품목이 본격적으로 이탈하기 시작한 것이 1990년대였으며,

2000년대 중반 사실상 양돈, 양계는 지역 축협과 거래하는 경우는 매우 드문 상황이 되었다.

## 한우의 전업화 그리고 축협과의 갈등

2000년대 이러한 구조 변화가 마무리되면서 지역축협은 한우축협이라 불려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한우농가 중심의 조합으로 변모하게 된다.

문제는 타 축종보다 10~20년 늦게 전업화가 시작된 한우농가들도 양돈과 양계농가와 마찬가지로 비슷한 불편을 겪고 있다는 것이다.

경쟁 관계에 있는 민간사료업체들이 전업 한우농가에 축협보다 더 좋은 조건을 제시하며 거래를 성사시키기 시작했고, 이들 전업농가 중심의 새로운 조직체들이 만들어지면서 다양한 서비스를 선보이기 시작한 것이다.

이들 새로운 한우조직들은 사료, 출하, 분뇨처리 등의 사업에 있어서 축협보다 전업농가의 눈높이에서 서비스를 설계하기 시작했고 자연스럽게 지역축협을 이탈하거나, 축협 이용을 줄여나가는 식으로 반응하는 한우농가들이 많아지기 시작한 것이다.

일부 축협에 애정이 있는 농가들은 서비스 개선 등을 강력히 요구하다가 갈등을 빚기 시작했고, 횡성축협처럼 한우회 또는 한우농가들과 축협 간 극한의 갈등으로 이어지며 회복하기 힘든 상황에까지 치달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기 시작했다.

경기 이천의 경우 축협과 한우회가 각각 별도의 한우 브랜드를 만들어 운영하고 있고, 한우 이력제 사업도 축협과 한우회로 이원화되었다. 강원도 홍천에는 관내에서 한우 브랜드사업을 하는 주체로 홍천축협, 농업회사법인, 사랑말한우영농조합 등으로 나누어져 있다. 정읍에서는 축협은 도 광역브랜드사업에 참여하고 있고, 지역 한우농가들은 단풍

미인 한우라는 영농조합이 활발히 운영되고 있기도 하다. 축협이 독점 운영하게 되어 있는 가축시장을 한우협회 중심으로 별도 조성해 축협의 우시장과 한우협회 지부가 운영하는 우시장이 동시에 개설된 지역도 있다.

최근 축산법 개정으로 가축시장 개설의 축협 독점이 끝나면서 한우회 등이 중심이 된 우시장 개설은 더욱 가속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 소규모 경영체의 경쟁력

한우협동조합이 광역단위로 조직되어 있고, 소규모 영농조합, 소규모 농업회사법인이 한우농가들 중심으로 만들어지고 있다.

농장이 어느 정도 규모가 커진 만큼 많은 수의 농가가 연대할 필요가 사라졌기 때문에 마음 맞는 농가끼리 모여 새로운 경영체를 조직해도 충분히 규모의 경제를 이룰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

마음 맞추기 힘든 큰 조직보다는 마음에 맞는 사람들 끼리 슬림한 조직을 구성해 나가는 게 사업 추진에 있어서 쉽기 때문이다.

지역축협은 기로에 서 있다. 농가들이 계속해서 새로운 조직을 만들어 조합 사업에서 이탈하거나 축협 이용을 줄여나간다면 생존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이다.

축협이 혁신을 통해 전업화, 규모화된 조합원들의 필요를 충분히 채워줄 수 있는 조직으로 거듭난다면 좋겠지만, 다양한 생각과 요구를 모두 수용하기는 사실상 어렵다고 보는 게 합리적이다.

실제로 이 같은 다양한 수요는 축협보다는 민간기업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통해 충족하는 경우가 다반사이다.

민간배합사료회사, 수의전문기업, 사양전문컨설팅회사, 환경관련 전문기업 등이 양계와 양돈업계에는 무수히 존재한다.

조합이 모든 걸 다 잘해 낼 수 있다고 장담할 수도 없다.

결국, 축협의 생존을 위해 축협에 호의적인 농가들을 중심으로 조직을 정예화할 건지 아니면, 새로운 서비스를 계속 개발해 농가들의 이탈을 최소화 할지를 고민해야할 때다.

개인적인 생각은 지역축협은 배제보다는 지역 내 여러 축산 조직과 연대하고 공존할 방안을 찾을 필요가 있다. 즉 제3의 길을 찾으라는 이야기다.

지역축협은 지역 축산업을 포용하는 큰 그릇이 되어 지역 내 크고 작은 조직과 협력해 조합의 약점을 보완하고 농가들에게는 더욱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식으로 지혜를 발휘해야 한다는 것이다.

축산뿐만 아니라 경종농업 부문에서도 전업농들의 탈 농협 현상은 쉽게 목격할 수 있다.

우리 농업은 세대가 바뀔 때마다 전업농 중심으로 농업 구조는 바뀔 수밖에 없다. 산업에 애정을 품고 있는 전업농과 함께할 방안을 찾는 것이 지역 농축협들이 생존하는 길로 보인다.





# 제23회 전국한우능력평가대회 대통령상에 전남 영암 ‘김용복 씨’

## 전남 영암 김용복 씨 대통령상 수상 영예 대통령상 수상축 kg당 11만원…6,259만원 낙찰 “암소 중요성, 거세비육우 개량목표 설정 중요” “한우능력평가대회, 세계 속 경진대회로 발돋움하길”

‘제23회 전국한우능력평가대회’에서 전남 영암군 한우농가 김용복 씨가 영예의 대통령상을 차지했다.

김씨가 출품한 한우는 총 273마리의 출품우 중 출하체중 863kg, 도체중 569kg, 등심단면적 164cm<sup>2</sup>, 등지방두께 8mm, 육량지수 64.68점, 마블링(근내지방도) 93점으로 최고성적을 거뒀다. 지난해인 2019년 한우 거세우 평균 도체중 446kg에 비해 123kg이 더 나가고 넓은 등심단면적 등에서 높은 평가를 얻었다.

경매행사에 앞서 농협음성축산물공판장 김 옥 실장은 “등심단면적 크기가 매우 넓고 마블링이 촘촘하게 박혀 있는 것이 특징”이라며 “김용복 농가는 중매인들 사이에서 유명인이다. 출하마다 kg당 3만원을 호가하는 농가로 기억된다”고 귀띔했다.

본격적인 경매행사가 시작되면서 주관 및 주최단체 등의 인사말이 오갔다.

이재용 한국중축개량협회장은 “고품질 한우고기 생산을 위해 노력하신 농가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한우능력평가대회는 암소개량의 중요성을 일깨우고 거세비육우의 개량목표 설정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대회”라고 소개했다.

김홍길 회장도 고품질 한우를 출품한 농가들을 치하하면서 “앞으로도 이 대회가 더욱 발전하고 세계 속의 대회로 자리 잡아 한우의 우수성도 전세계로 뻗어 나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용복 씨의 대통령상 수상축은 14일 충북 음성축산물공판장에서 열린 경매에서 1kg당 11만원, 총 6,259만원에 낙찰됐고 동원홈푸드 금천사업부에서 구매했다.



대통령상 수상축을 10년 연속 구매한 동원홈푸드 신영수 대표는 “코로나19 발생으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한우농가와 소비자 그리고 한우산업 발전을 위하여 대통령상을 최고가에 구매하였다”고 밝혔다.

한편, 한우능력평가대회 시상식은 오는 10월 30일 세종시 축산물품질평가원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 2020년 제 23회 전국한우능력평가대회 수상자 명단

▲대통령상=김용복(전남 영암) ▲국무총리상=강하신(전북 군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상=김길홍(경북 상주) ▲한국종축개량협회장상=서승민(전남 영암) ▲전국한우협회장상=최규빈(전북 정읍) ▲농촌진흥청장상=김용우(전남 영암) ▲축산물품질평가원장상=신명섭(경기 용인) ▲한우자조금관리위원장상=박재학(강원 홍천) ▲축산관련단체협의회장상=민경열(충북 옥천) ▲대회추진협의회장상=이용연(충남 홍성) ▲”(육질우수)=허준(전북 정읍) ▲”(육량우수)=이희규(강원 원주)



▲ 제 23회 한우능력평가 대통령상 수상한 전남 영암 김용복 씨

## 화제의 인물

### 전국한우능력평가대회 대통령상

“개량을 위한 거듭된 선발과 도태의 결과”

귀향 20년차 한우인의 한우물...‘과감한 도태’

지역 한우농가들의 도움과 배움으로 성장...“감회 새로워”

2020년 최고의 한우농가로 등극한 전남 영암 김용복 씨. 그는 수상 비결로 철저하고 꾸준한 개량을 꼽았다. 개량을 위해 과감한 도태와 비싸더라도 혈통이 우수한 송아지를 들이는 것이 철칙이었다.

전남 영암 김용복 씨는 “절대 타협하지 않았던 건 성적이 떨어지는 암소의 도태”라며 “암소는 반드시 경매장으로 출하해 성적을 확인하고 이 성적에 따라 후대까지 모두 도태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밝혔다.

그는 또 “개량을 시작하면서 적어도 3세대가 지나야 진짜 성적을 알 수 있다고 생각해 10여년 간 개량에 매진했다”며 “성적이 좋지 않아 도태한다는 게 매몰차 보일 수 있는





▲ 김용복씨와 아들 김대욱씨.

데, 이 개체가 계속 송아지 생산에 가담하면 농장의 전체적인 성적도 떨어지고 개량에 대한 원칙을 스스로 어기는 것이기 때문에 과감히 도태시키는 철칙을 지금까지 지켜오고 있다”고 말했다.

과감한 도태와 비싸더라도 혈통이 좋은 송아지를 구매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지키기 어려운 원칙이기도 하다. 그는 여기에 출하성적관리까지 더했다.

김 씨는 “암소를 경매장에 보내 확인한 출하성적을 기록해 꼼꼼히 관리한다”며 “다음 개량을 위해 이 데이터를 활용한다”며

“출하정산서와 등급판정서 등도 보관하해 비교 분석한다”고 말했다.

개량의 효과는 단시간 내 거둘 수 없는 만큼 오랜시간 원칙을 지키고 축적된 데이터를 활용하여 지금의 대통령상까지 거머쥐는 순간이 오게 됐다는 설명이다.

개량에 매진하면서 원칙을 지켜온 것도 비결이지만, 처음 귀향해서 지역 한우농가들에게 많은 가르침을 받기도 하고 다른 상을 탄 서승민 농가를 통해 든든한 밑소 기반을 다진 것도 큰 도움이 됐다는 김용복 씨.

그는 현재 300여두 규모의 농장을 운영중이지만 500~600두 농장의 수익과 버금간다고. 그는 아들에게도 자신의 가치관과 비법을 전수하고 있다.

“한 마리, 한 마리 계속 좋은 소를 내면서 좋은 성적으로 수익을 낸다면 굳이 사육두수를 늘리지 않아도 되지요. 요즘은 일과 삶의 균형이 중혀쥬잉. 허허허허”

# 어린송아지 사양관리 개선을 통한 생산성 향상

지엠디컨설팅

이번 호에서는 한우농가 컨설팅을 통해 어린송아지 사양관리를 개선하여 농장의 생산성을 향상시킨 보성군 A농장의 사례를 소개하고자 한다.

보성군 A농장은 지역 내 한우산업의 리더로서 본 사업에 대해 충분한 이해로 컨설팅의 필요성을 누구보다도 깊이 이해하고 있는 농가이다.

지역 내 본이 되기 위해서 전국 최고수준의 농장으로 발돋움하는 것을 목표로 세우고 첫 사업으로 컨설팅 사업을 신청하였다.

## 농장 진단을 통한 개선계획 수립 및 컨설팅

A농장은 180두 규모의 일관농장으로, 가임암소는 70여 두를 사육하면서 송아지를 생산해 자체 비육으로 연간 60여 두를 출하하는 일관사육 농장이다. A농장의 컨설팅 전인 2018년 농장 성적을 살펴보면 <표1>과 같다.

<표1> 컨설팅 전(2018년) 농장 성적

번식우 성적				비육우 성적			
번식률	번식간격	송아지 폐사율	송아지당 수정횟수	1+이상 출현률	출하월령	출하체중	등심면적
96%	12.5개월	4%	1.7회	78%	29.8개월	748kg	97.8cm <sup>2</sup>

A농장의 컨설팅 실행 전 성적은 번식부분의 경우 모든 지표가 전국의 컨설팅 참여 농가 중에서도 평균보다 높은 수준의 농장이었으며, 거세 비육우의 출하성적은 1+이상 출현율의 경우는 전국평균을 상회하는 성적을 나타내고 있었으나, 1++출현율의 경우에는 전국 평균에 못 미치는 성적을 나타내고 있었다. 특히 세부사항에서는 등심단면적과 근내지방도에 아쉬움이 있었다. 우수한 번식성적을 바탕으로 비육부분의 부가가치를 극대화 하기 위한 컨설팅이 더 필요한 농장으로 진단하였다.

농장의 실태를 정밀 진단하고 경영자와 심도 있는 인터뷰와 토론을 거쳐 번식·비육 각



분야별로 문제점을 도출하고 도출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컨설팅 계획을 <표2>와 같이 수립하였다.

〈표2〉 농장 문제점 도출 및 컨설팅 실행계획

컨설팅분야	문제점	목표	컨설팅 계획
번식관리	송아지 이유체중 미약	번식우 BCS관리 송아지 이유체중개선	분만전후 사양관리 개선 방안 제시, 번식우 BCS관리 교육, 송아지 입붙이기 교육
비육관리	등심면적이 적음 근내지방도 미약	등심단면적 확대 근내지방도 개선	급여프로그램 개선 단계별 사양관리 방안 제시
질병관리	송아지 호흡기 및 설사 관리 미흡 번식질병관리미흡	번식질병 예방 송아지 설사 개선	번식관련 질병 교육 송아지설사예방 집중교육 (약품 사용 방법, 관리방법 등)
축사시설· 환경관리	축사관리 상태 미흡	쾌적한 환경유지 축사바닥, 수조, 환기등 적정관리	과학장비 활용 환경상태를 점검하여 개선 방안 제시 축사환경 청결유지 교육
경영관리	경영관리 미흡	데이터 관리 실현 및 사업계획 구축	데이터 관리 방법 및 사업계획 구축방법 교육 정기적으로 정보 제공

A농장은 자가생산한 송아지의 자질과 건강상태가 향후 거세비육우의 성적과도 직결되므로, 송아지의 이유체중을 극대화시켜야 했다. 왜냐하면 이유체중은 번식과 비육부분을 모두 관통하는 농가 생산성의 가장 중요한 척도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우선 이유체중 극대화를 위한 첫 번째 관문은 ‘생시체중의 극대화’에 있다. 생시체중을 극대화 하기 위해서는 번식우 사양관리, 그중에서도 분만전후 사양관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있다. 그러나 이미 A농장은 번식률과 육성률에서 훌륭한 성적을 거두고 있으므로 송아지 입붙이기를 성공적으로 유도하여 사료의 섭취량을 증가시키도록 설정하였다.

또다른 중점사항은 ‘어린송아지 공동송아지방 운영을 효율화시키는 것’이다. 공동송아지방 운영의 장점은 약간의 일량차이가 있는 송아지를 공동사육함으로써 조기 입붙이기를 쉽게 따라하고 적응시킬 수 있으며, 이는 배합사료 뿐 아니라 조사료에서도 활용된

다는 점이다. 단점은 감염성 설사가 발생했을 때 개체 간 전염이 더 쉬우므로 위생관리  
에 신경을 써야한다는 것이다. A농장은 예전부터 공동 송아지방을 운영했으나, 물통 관  
리나 입붙이기 방법론의 부재에 있어 아쉬운 점이 있었다. 따라서 컨설팅을 통해 입붙이  
기 사료의 필요성과 송아지의 소화흡수율에 대한 이해를 접목시켜 어린송아지가 보다  
수월하게 입붙이기 사료에 접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다.

### 〈자료1〉 이유체중 증가를 위한 컨설팅 내용



### 〈자료2〉 송아지육성을 개선하기 위한 설사 및 호흡기 예방 컨설팅 내용

송아지 설사 원인 균 분석

열화상진단 프로그램이용(질병우)

혈중비타민 A농도(면역관련)

시기	출생~3주
예방접종	호흡기 질환 농약자·분만전 예방접종, 4대질 백신
관리프로그램	관리프로그램

관리프로그램

예방접종	예방접종	예방접종	예방접종
호흡기 질환 농약자·분만전 예방접종, 4대질 백신	호흡기 질환 농약자·분만전 예방접종, 4대질 백신	호흡기 질환 농약자·분만전 예방접종, 4대질 백신	호흡기 질환 농약자·분만전 예방접종, 4대질 백신

백신프로그램

이뿐만 아니라 A농장은 등심단면적과 근내지방도 개선을 위해 단계별 중점관리사항인  
‘비육전~중기와 마무리시기 사료섭취량 극대화’에 집중하였다. 물론 육성구간의 반추위  
의 성장과 골격형성이 받쳐주었을 때 가장 효과적이라 할 수 있겠다.



결론적으로 A농장의 이유체중 증가를 위한 노력은 비육우의 등심단면적과 근내지방도 향상을 위한 대들보였던 것이고, 그 노력의 결실이 드디어 올해부터 나타나기 시작했다.

## 컨설팅 결과 개선된 비육우 출하성적

보다 부가가치 높은 성적을 위하여 노력한 결과 컨설팅이 진행중인 올해에도 그 결과가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표3>에서와 같이 무엇보다도 근내지방도의 개선이 괄목할 만한 점이라 할 수 있다. 이로 인하여 1+이상 출현률은 2018년 대비 12.2% 개선 되었으며, 이는 1++출현률 증가에 의한 것이다. 더욱 희망적인 것은 도체중과 등심단면적이 같이 증가하였다는 것이다.

〈표3〉 거세비육우 컨설팅 전후 주요 경제형질 성적 비교

항목	컨설팅전(2018년)	컨설팅중(2020년)	평균변화
1+이상 출현률	77.8%	90.0%	12.2% 증가
출하월령	29.8개월	29.8개월	-
평균 도체중	449kg	459kg	10kg 증가
근내지방도	5.8	7.1	1.3 증가
등심단면적	97.8㎢	101.5㎢	3.7㎢ 증가
C등급 출현율	22.2%	10.0%	12.2% 감소

무엇보다도 A농장은 이유체중의 개선을 위한 노력이 현재진행형이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매우 크다. 왜냐하면 거세비육우의 성적은 육성기 사육결과와 연관성이 크기 때문이고, 이유체중이 증가한 비육우들은 아직 성장 중이기 때문이다. 2021년 이후의 A농장의 성적이 기대가 된다.



# 한우사육 100문100답

국립축산과학원

## Q. 송아지 설사병 예방은 어떻게 하나?

송아지 설사의 발생요인은 매우 다양하므로 위생적인 사양관리가 중요하다. 임신우가 들어가서 분만할 축사는 분만 전에 청소하고 소독하는 것이 좋다. 그리고 분만 후 빠른 시간 안에 송아지가 초유를 충분히 섭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다. 송아지가 초유를 먹으면 초유에 있는 항체가 장을 통하여 흡수되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장에서의 흡수 능력이 떨어지고 분만 후 24시간이 지나면 초유를 먹어도 항체가 거의 흡수되기 힘들다. 우사와 급이기 등을 청결, 건조하게 하고 소독을 철저히 하며 양질의 대용유, 사료, 건초를 급여하고, 송아지가 과식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특히 농장에서 송아지가 사육공간을 빠져나와 이물질을 빨거나 섭취하는 경우에 설사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특히 바이러스성 질병에는特效약이 없으므로 바이러스 설사병은 예방백신 접종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코로나바이러스와 로타바이러스 감염에 의한 송아지 설사가

가장 빈번히 발생한다. 이 두 가지 바이러스 혼합백신이 판매되고 있으며, 투여방법은 임신우에 대하여 분만예정일 5~6주 전에 1차 주사하고, 2차는 분만예정일 2~3주 전에 주사한다. 임신우에게 접종하지 못한 경우에는 태어난 송아지가 초유를 먹기 전에 코로나 바이러스와 로타바이러스 혼합 백신 2두 분량을 희석하여 먹임으로써 예방할 수 있다. 갓 태어난 송아지에게 백신을 경구 투여해도 항체가 형성되기 전에 야외 강독바이러스에 노출시에는 발병되므로 임신우에게 백신을 접종하는 것을 권장한다. 3일령 이내의 송아지에서 대장균성 설사가 발생하는 농장은 대장균백신을 코로나, 로타바이러스 백신 접종 시 같이 접종한다.

- 문의 : 국립축산과학원 한우연구소 (033-330-0617)

## Q. 송아지의 설사병 조치 시 주의할 점은?

송아지 설사병은 신속한 발견과 치료가 중요하다. 설사증상을 나타내는 송아지는 격리하고, 영양공급 및 보온을 해준다. 설사가 시작되면 24시간 동안 절식 후 전해질 체액 및 에너지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제제를 투여하며 송아지가 회복됨에 따라 하루에 3회 정도 전유를 조금씩(첫날은 체중의 8% 이내) 급여하고 그 후 점차 늘려 나간다. 병원균의 억제를 위한 항생제 또는 설파제를 투여하며, 항체 공급을 위해 감마 글로브린을 주사하고, 위 점막의 보호 및 독소의 흡착을 위하여 수렴제 및 지사제를 경구 투여하며, 보조치료제(대사촉진제, 영양제, 소화제, 생균제 등)를 투여 시 효과적이다.

치료 시에 주의할 점은 우유나 대용유에 전해질제제를 섞어서 급여하면 효과가 없고, 동일 항생제를 3일 정도 주사 및 투여해도 효과가 나타나지 않으면 다른 항생제로 바꾸어 사용하는 것이 좋다.

또한 세균감염성 설사병 발생 시에는 항생제 투여에 의한 치료효과가 빠른 반면, 항생제 치료효과가 잘 나타나지 않을 때는 바이러스감염성 설사병을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 바이러스감염성 설사에는 앞에서의 보조치료 방법을 사용하는데 세균성 설사 치료보

다 회복속도가 느릴 수 있다. 모든 질병은 발생 후 치료보다 예방이 최선의 방법이다. 따라서 예방접종의 필요성을 다시 한 번 생각할 수 있다.

- 문의 : 국립축산과학원 한우연구소(033-330-0617)

## Q. 근친교배의 장단점과 근교계수 허용 범위

### 근친을 피하는 기본 규칙을 잘 지키자

① 암소의 혈통을 보고 사용하고자 하는 씨수소가 해당 혈통에 한번이라도 사용되었거나, 씨수소의 아버지가 적어도 암소의 아버지, 암소의 외조부로 사용되었다면 근친이 된다고 판단할 수 있다.

② 어미에게 사용한 정액을 그 딸 소에 또 사용하지 않도록 한다. 사람으로 따지면, 아버지가 딸에게 장가를 드는 경우가 된다. 특별한 목적으로 이러한 교배를 실시한다면 모를까 일반적으로 실시하지 않아야 할 교배이다.

③ 근친이 되어버린 암소는 어떻게 하여야 하는가?

이미 근친이 된 암소라도 해당 암소의 조상과 혈연관계가 먼 정액을 사용해 교배를 하여 생산한 송아지는 근친문제가 없어진다. 해당 암소의 혈통을 보고 사용하고자 하는 씨수소가 해당 혈통에 한번이라도 사용되지 않았는지 확인하고, 또한 씨수소의 아버지가 적어도 암소의 아버지, 암소의 외조부로 사용되었는지를 살펴보고 사용되지 않았다고 하면 교배용 씨수소로 사용해도 문제가 없다고 볼 수 있다.

④ 교배할 씨수소 선택 시 암소의 아버지 및 외조부와 혈연관계를 고려하여야 하는데, 일반적으로 혈연계수가 12.5% 이상인 경우 근친으로 간주한다. 혈연계수가 12.5~24.9%는 주의, 25.0~49.9%는 경고, 50% 이상은 위험 수준으로 하여 농협경제지주 한우개량사업소에서 발간하는 한우 보증씨수소 일람에서 정의하고 있으며, 각각의 혈연계수에 따라 교배를 피해야 할 씨수소를 나타내고 있다.

또한 국립축산과학원 가축개량평가과에서 발간하고 있는 「한우 교배계획 길라잡이」

에서는 근교계수가 3.125~6.24%는 주의, 6.25~12.4%는 경고, 12.5%이상은 위험으로 정의하고 있다.

- ⑤ 농가에서 보유 암소에 특정 씨수소를 교배하여 태어날 송아지의 근친여부와 각 형질별 능력을 사전에 자세히 알고자 한다면 국립축산과학원에서 제공하는 한우 교배계획 길라잡이 엑셀 프로그램(국립축산과학원 홈페이지 → 연구활동 → 농가활용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으며, (사)한국종축개량협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인 [한우계획교배]를 휴대폰에 설치하여 활용할 수 있다.

- 문의 : 국립축산과학원 한우연구소(033-330-0686)

## Q. 분만예정일은 어떻게 산출 하는가?

한우의 임신기간은 평균 285일이지만 연령, 분만계절, 모체의 상태, 태아의 성별과 쌍태 등 여러 요인에 따라 달라진다. 쌍태의 경우 임신기간이 짧으나 수송아지는 암송아지보다 임신기간이 1~2일 정도 길다. 따라서 분만 예정일보다 분만이 1~2일 늦어지면 수송아지일 경우가 많다. 태아의 크기가 클수록 임신기간은 다소 짧아진다. 어미의 연령이 많을수록, 산차를 더 할수록 임신기간이 길어지는 경향이 있다.

겨울에 분만하는 것이 가을에 분만하는 것보다 임신기간이 길어지는 경향이 있다. 일반적으로 분만 예정일은 인공수정한 달에서 3을 빼고 인공 수정한 날짜에 10을 더하여 산출한다. 예로 4월 1일 인공수정을 하였다면  $4-3=1$ ,  $1+10=11$ 로 분만 예정일은 다음해 1월 11일이 된다. 1, 2, 3월처럼 3을 뺄 수 없는 달은 12를 더한 수에서 3을 빼고, 21일 이후처럼 10을 더하여 30일이 넘는 경우에는 10을 더해준 수에 30을 뺀다. 예로 1월 21일 수정하였다면  $(1+12)-3=10$ ,  $(21+10)-30=1$ 이 되나 분만 예정일은 월을 넘겼으므로 11월 1일이 된다.

- 문의 : 국립축산과학원 한우연구소(063-330-0625)

출처 - 축산현장 애로기술 해결을 위한 한우사육 100문100답집 (2019. 12., 국립축산과학원)





# 소식 정보



## 01 11월 1일 한우먹는날, 가족과 한우를 즐기세요

한우고기 최고 46% 할인판매...

한우 구매 인증 온라인 이벤트 풍성

천만원 상당 황금송아지, 김치냉장고 등 '억소리'나는 경품 지급

□ '11월 1일, 대한민국이 한우먹는 날'을 맞이해 온 국민이 한우를 저렴하게 즐기고 경품도 받을 수 있는 한우고기 축제가 진행된다. 전국한우협회와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는 11월 1일 한우먹는날을 추석과 설명절 사이 하나의 민족명절로 승화시키기 위해 국민과 함께하는 이벤트와 한우고기 할인행사를 집중하고 있다.

□ 야외 한우숯불구이축제로 기억되던 '11월 1일 대한민국 한우먹는날'은 코로나 19 등 방역상황을 고려해 올해는 온라인 이벤트로 준비됐다. 한우홍보대사인 배우 남궁민의 영상축전에 이어 TBC 이도현 아나운서의 진행으로 골프여제

# 11월 1일 행사기간: 11월 1일 ~ 21일 대한민국이 한우먹는날!

01 한우 구입한 1,101명에게 쓴다!

02 '한우FLEX' 이벤트

03 제로페이에서 한우사랑상품권 20%할인

박세리와 김홍길 전국한우협회장, 민경천 한우자조금관리위원장의 한우 토크 콘서트가 열린다.

□ 국가대표 골프감독 박세리와 함께하는 11월 1일 대한민국이 한우먹는날 개막 영상은 11월 1일 유튜브에 업로드될 계획이다.

□ 행사 전인 10월 29일부터 한우고기를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다. 전국 대형마트 및 농축협매장, 한우영농조합 및 온라인 몰 등에서 한우 정육 및 구이 등을 최고 46%까지 할인판매한다.

□ 국민과 함께하는 한우구매 인증 온라인 이벤트는 11월 1일부터 21일까지 진행된다. 전국 모든 매장에서 한우를 구매한 영수증과 사진을 이벤트페이지에 응모하면 추첨을 통해 총 1,101명에게 황금송아지(111g, 1명), 의류관리기(2명), 김치냉장고(3명), 태블릿PC, 한우세트 등의 경품을 지급한다.

□ SNS를 활용한 한우 플렉스 이벤트도 진행된다. 같은 기간내 인스타그램에 '#11월1일 #한우FLEX #2020대한민국이\_한우먹는날'등 3개의 해시태그를 포

함한 게시물을 올리면 된다.

- 또한, 11월 2일부터 30일까지 한달간 제로페이에서 한우사랑상품권이 모바일 형태로 발행돼 한우를 더욱 저렴하게 즐길 수 있다. 모바일 한우사랑상품권은 제로페이에서 20% 할인된 금액에 판매한다. 한우사랑상품권은 우리한우판매점에서 한우를 구입하거나 식사권으로 사용할 수 있다. 사용이 가능한 매장 정보는 ‘한우유명한곳’ 사이트에서 알 수 있다.
- 한우고기 할인행사 매장 및 기간, 할인율, 이벤트 응모방법과 당첨자 발표 등 자세한 사항은 이벤트페이지를 접속하거나 전국한우협회 또는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김홍길 전국한우협회장은 “한우는 우리나라 역사와 함께하는 대한민국 농업의 기둥이자 문화유산이기 때문에 국민들의 더욱 큰 관심과 사랑이 필요하다”며 “11월 1일 한우먹는날 만큼은 온 국민이 한우를 부담 없이 맛보고 소비자와 한우농가 모두에게 즐겁고 행복한 날이 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 한편, 한우데이라고도 불리는 11월 1일 대한민국 한우먹는날은 지난 2008년에 선포되어 올해 13회째를 맞았다. 한해 농사를 마무리한 한우농가들의 자긍심을 높이고 한우를 사랑해 주는 국민에게 보답하기 위한 날이다. 11월 1일은 한민족의 전통사상인 천지인(天地人)을 모티브로 최고를 뜻하는 1이 3번 겹치는 날이라는 의미로 지정됐다.



## 02 면역력에 도움이 되는 한우와 함께 코로나19 극복! 한우자조금, 에버랜드 ‘레드 앤 그릴’ 행사 성료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가 10월 11일까지 에버랜드 장미원 일대에서 진행된 ‘레드 앤 그릴(Red & Grill)’ 행사에 참여해 다양한 이벤트들로 시민들에게 위로와 즐거움을 선사했다.

에버랜드 ‘레드 앤 그릴(Red & Grill)’은 탁 트인 야외에서 세계 각국의 바비큐 요리를 즐기는 행사로 엄격한 방역 지침을 준수하며, 관람객들의 높은 시민의식 속에 성공적으로 종료됐다.

한우자조금은 이번 ‘레드 앤 그릴’에 참여해 에버랜드를 찾은 가족, 연인, 친구 등 다양한 관람객들을 대상으로 면역력에 도움이 되는 한우의 우수성을 알리는 다양한 이벤트들을 선보였다. 한우 불고기 퀘사디아와 한우 채끝 시식을 비롯해 한우 포토존, 다트, OX퀴즈, SNS 참여 이벤트 등 다채로운 이벤트와 경품을 제공해 코로나19로 지쳐있던 시민들에게 작은 위로와 즐거움이 되었다.

또한 온택트 소비 문화에 맞춰 맛과 영양이 우수한 우리 한우를 집에서도 안심하고 간편하게 구매할 수 있도록 한우자조금에서 운영하는 온라인 사이트 ‘한우유명한곳(www.한우유명한곳.com)’ 홍보도 함께 진행하였다.



### 03 우리 한우의 우수한 맛과 영양의 비결은? 한우자조금, ‘한우 농가를 찾아서’ 캠페인 광고 공개 생산부터 유통까지 과학적이고 위생적인 품질 관리 시스템 강조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가 한우 농가의 과학적이고 위생적인 관리 시스템으로 대한민국 자부심으로 거듭난 한우의 우수성을 알리는 2020년 캠페인 광고 “한우 농가를 찾아서” 편을 공개했다.

한우자조금은 캠페인 광고를 통해 생산부터 유통까지 빈틈없는 한우 관리 시스템으로 한우에 대한 신뢰성 제고와 한우를 키우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농가들을 응원하는 메시지를 전달했다.

이번 캠페인 광고는 맛과 영양이 우수한 우리 한우의 비결을 찾기 위해 외국인이 한우 농가를 방문해 농장주에게 한우 품질 관리의 비결과 우수성을 알게 된다는 내용이다.

특히 어플리케이션을 통한 스마트 농장 관리와 축산물 이력제 등 철저하고 위생적인 유통 관리로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한우 관리 시스템과 올레인산이 풍부해 건강과 면역력에도 도움이 된다는 내용을 함께 강조하였다.



한국농정

**횡성축협 조합원 제명, 항소심서 무효** (2020.09.21)

**지역축협·한우협동조합 간 갈등으로 2018년 제명 사태  
서울고법, 1심 깨고 경쟁보다 ‘협동조합 간 협동’ 앞세워  
한우협 “농·축협, 농축산인 포용하고 분쟁 자제해야”**

법원이 횡성축협(조합장 엄경익) 조합원 제명 사태에 대한 항소심에서 조합원 제명은 무효라고 판결내렸다. 지역축협과 한우협동조합 간 갈등에서 빚어진 이번 사태가 해결국면에 접어들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고등법원 춘천제1민사부는 지난 9일 횡성축협에서 제명된 조합원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제명결의는 무효라고 판결했다. 앞서 지난해 8월 열린 1심에서는 횡성축협의 제명결의를 인정했지만 항소심에서 뒤집힌 것이다.

횡성축협은 2018년 4월 임시총회를 열고 횡성한우협동조합(이사장 이동옥)에 가입한 조합원들에 대한 제명을 결의했다. 횡성축협은 한우판매사업에서 횡성한우협동조합과 서로 경쟁관계에 있으며 이들 조합원들이 횡성축협의 사료·출하사업을 이용하지 않는다는 점을 제명 이유로 들었다.

서울고법은 이에 대해 두 조합이 일부 경쟁관계가 있을 여지를 인정하면서도 “횡성축협이 경쟁관계에 있는 생산자단체들과 협상을 통해 통합브랜드를 개발해 공동의 이해관계를 형성하는 것도 가능하며 농협법도 일반 조합원에겐 점업금지 의무를 부과하지 않았다”며 적법한 조합원 제명 사유가 아니라고 설명했다. 농림축산식품부 또한 경쟁관계에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조합원 제명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보냈다.

농협협동조합법 제 10조를 보면 ‘농협은 타 협동조합과의 상호협력, 이해증진 및 공동사업 개발 등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또, 이성희 농협중앙회장은 1일 국제협동조합농업기구(ICA) 화상토론회에서 “지금 같은 어려운 시기에 협동조합의 가치는 더

욱 빛날 수 있다. 코로나시대 각국의 모범사례를 공유하고 협동조합간 협동을 통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번 판결 역시 거듭 협동조합의 원칙 중 하나인 ‘협동조합 간 협동’을 강조한 셈이다.

또, 서울고법은 사료·출하사업 미이용 역시 조합원 제명 사유로 적합하지 않다고 봤다. 서울고법은 판결문에서 “사료 구입은 조합원 개인의 선택”이라며 “횡성축협 조합원 상당수가 횡성축협에 사료를 공급받지 않아도 조합원 자격을 유지하고 있으며 횡성축협을 통해서만 축산물을 출하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전국한우협회(회장 김홍길)는 16일 서울고법의 조합원 제명 무효 판결에 환영성명을 내고 “농·축협이 농민의 만형으로 지역의 농축산인을 포용하는 큰 그릇이 되길 당부한다”고 전했다. 한우협회는 “이번 재판은 횡성축협에 국한된 문제가 아닌, 대한민국 농업 질서와 농축산업계에 큰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다”라며 “농·축협은 농민의 선택권과 자주권을 존중해 더 이상의 분쟁을 자제하길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 ㉨ 농민신문사

### 한우협회 “자연재난 시 한우 입식비 지원 단가 상향해야” (09.21)

전국한우협회가 가축입식비에 대한 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 기준을 상향해달라고 정부에 촉구하고 나섰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최근 개정 고시한 ‘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 기준’에 따르면 한우 송아지와 육성우의 가축입식비는 각각 1마리당 140만500원, 156만원으로 책정됐다.

이는 최근 가축시장에서 거래되는 암송아지와 수송아지 평균 경락값(각각 340만원, 440만원)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자 2011년 이래 전혀 인상되지 않은 가격이다.

이에 한우협회는 성명서를 통해 “사슴·말·칠면조에 심지어 지렁이까지 입식비 지원단가

가 인상됐는데, 한우 입식비는 10년째 제자리”라며 “정부의 차별과 형평성 없는 기준에 9만 한우농가가 분노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지난 집중호우로 폐사한 1161마리 가운데 가축재해보험에 가입한 한우가 12%에 불과할 정도로 보험 가입률이 낮다”며 “자연재난 복구비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게 한우농가의 현실”이라고 강조했다.

한우협회는 “자연재난 복구비용 단가를 현실에 맞게 재조정해야 하며 가축재해보험도 농가 가입률을 높일 수 있도록 개선해 앞으로 자연재해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Weekly 농축유통신문

### 항생제 범벅 미국산 냉동 우족 수입 중단 촉구 (10.7)

#### 국내서 금지된 니트로푸란계 대사물질 검출 한우협, 수입축산물이력시스템 전면 개선 요구

미국산 냉동 우족에서 항생제가 초과 검출되면서 축산단체가 해당 제품 판매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식약처는 최근 미국산 냉동 우족에서 우리나라에서는 사용이 금지된 니트로푸란계 대사물질인 세미카바자이드가 기준치를 초과 검출돼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조치한다고 밝혔다.

이에 전국한우협회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이번에 검출된 성분은 국내에서 사용이 중단된 항생제인 점을 들어 미국산 쇠고기 전체에 대한 대대적인 검역·검사 강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성명서에 따르면 현재 부적합 제품은 식약처 수입식품정보마루를 확인 후 수입축산물 이력관리시스템과 축산물이력제 모바일앱에서 이력번호를 검색하면 알 수 있지만, 정보 검색만 될 뿐 회수대상이라는 정보는 알 수 없다면서 식약처가 발표한 내용이 수입쇠고기 이력제에는 뜨지 않는 반쪽짜리 시스템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협회는 또 해당 제품의 적극적인 회수를 위해 수입축산물이력관리시스템의 전면적인 개선을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물량이 한우나 타 수입산으로 둔갑돼 판매될 경우 소비자 피해까지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협회 관계자는 “이번 미국산 우족 안전성에 대해 검역검사 강화 등 책임 있는 후속대책을 마련하고 철저한 수입육의 유통단속으로 소비자와 생산자를 보호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 한우를 알려드립니다

### 한우 구울 때 나오는 핏물을 먹어도 되나요?

고기를 구울 때 나오는 핏물은 피가 아니라 단백질의 일종인 ‘미오글로빈’이란 물질이다. 미오글로빈은 일반적으로 근육을 붉게 보이게 하는 물질로 근육에 산소를 운반하는 역할을 한다. 고기를 구울 경우 근육조직이 변형, 파괴되면서 안에 있는 미오글로빈과 지방성분들이 붉은 빛을 띠며 빠져나오게 된다. 이 때 나오는 미오글로빈은 기타성분과 섞여 고기의 맛을 좌우하는 ‘육즙’이다. 한편 한우의 피는 도축과정에서 전부 제거되니 안심해도 된다.



# 전국한우협회 직거래유통망

- 농가가 원하는 적기 출하
- 경매 상장 수수료 無
- 운송비 절감
- 하자육 발생시 농가 손실 방지제도 운영



• 한 차(8두 기준) 출하, 100만원 이상 이득 ⇒ **농가수익개선**

전국한우협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직거래유통망은 부산물 제값받기와 적기출하를 위해 만들어진 전국한우협회 전용 도축유통망입니다.  
경매 상장수수료가 없고 운송비를 절감할 수 있어 경영안정에 유익합니다.

## ◆출하 신청방법 (☎ 02-525-1053)

- 담당 : 유통사업국 박호경 대리(내선 207)
- 시기 : 출하 계획 14일~30일전 협회로 신청
- 접수 : 중앙회 담당직원 연락 또는 시군지부 접수
- 팩스 : 02-525-1054



## ◆정산기준

구분	거세우	암소	비고
출하규격 (지육중량)	360kg이상 540kg이하	30개월 이상 60개월 이하 300kg이상 440kg 이하	
가격적용 기준	농협 음성축산물공판장 화, 수, 목, 금 평균가		
부산물	두 · 내장 · 우족은 농협 음성공판장 가격 적용		우피는 당해 도축장 가격에 따름
하자육 처리	출하대금의 0.1%를 적립하여 하자육 발생시 사용		하자육 금액이 kg당 1,000원 이상으로 발생시 일부 자부담 발생
기타	초과우 및 미만우 지급비율 ⇒ 중앙회 문의		



사단법인 **전국한우협회**



# 전국한우협회 전농가 회원 동의서

우리 한우 산업은 지금까지도 많은 난관을 극복 해왔지만 더 안정되고 보람된 생활을 위해서는 앞으로도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특히 지방화 시대를 맞아 시·군의 협회 활동이 더욱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일들은 농가 혼자서 해결 할 수 없고 한우 농가 전체가 함께 할 때 해결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우리 농가 전체가 전국한우협회의 회원이 되고 그 회비는 자조금 2만원 중에서 3천원을 협회비로 거출하여 지회·지부의 활동비로 사용하여 우리가 바라는 안정된 한우 산업을 이끌어 갑시다.

절 취 선

## 전국한우협회 회원 가입 및 회비 납부 동의서

본인은 한우자조금 2만원 중 3천원(한우자조금 17천원)을 전국한우협회비로 납부할 것을 동의하며, 약속대로 한우산업에 요긴하게 쓸 것을 당부드립니다.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휴대폰)	

개인정보보호(개인정보의 수집, 이용에 관한 동의서)

전국한우협회는 회원가입 등을 위하여 위와 같은 개인정보항목을 수집하고 있으며, 상기 가입서 내용은 본인이 직접 작성을 하였고, 개인 정보보호법에 의거한 개인정보수집, 이용, 제공에 대하여 동의하므로 서명 또는 날인합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전국한우협회 귀 중